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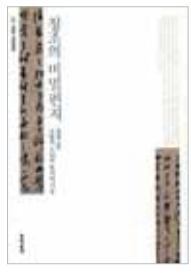
행복한 책 읽기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 <문학동네 펴>

아무리 부조리한 제도라도 새롭게 뜯어 고치는 일에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떤 제도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기대어 사는 기득권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적(敵)이 많았던 정조가 어떻게 개혁 군주가 될 수 있었을까. 정적들의 마음을 움직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정조어찰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임금이 쓴 편지를 어찰(御札)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어찰은 임금이 썼다는 것만으로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더욱이 임금이 직접 붓을 들고 편지를 쓰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더 귀할 수밖에 없었다.



다. 게다가 자신의 급한 성격이나 병증 같은 극히 사적인 일들을 털어놓음으로써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감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조어찰은 받는 사람에게 강압적이지 않고 유연하다. 심각하고 무거운 정치적 현안이 주된 내용이면서도 어찰 전체를 심각하게 몰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 편지에 의문을 나타내는 아(耶)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명령하는 어투가 아니라 묻는 어투이다. 물론 신하 입장에서는 감히 아니라고 대답할

개혁 군주의 통치기술

정조는 자신의 정적인 심환지에게 4년에 걸쳐 350여 통의 어찰을 보냈다. 그는 어찰을 통해 정치 현안, 인사 문제, 신료의 인물 평가, 정계의 여론 동향뿐만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상소마저도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되거나 중단되도록 조종했다.

이렇듯 정조가 심환지를 통해 막후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심환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정조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신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찰이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조어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어찰에서 신료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부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약과 음식을 보내 위로했

수 없었을 것이다. 정조어찰은 비밀편지다. 편지 내용에도 있듯이 정조는 편지를 보는 즉시 없애버리라고 했다. 또한 돌이 주고받는 편지내용이 밖으로 떠돈다면 심환지를 꾸짖는 내용도 있다. 그럼에도 심환지는 어찰을 없애기는커녕 받은 날과 시까지 기록해 놓았다. 노련한 정치가였던 심환지로서는 정조어찰이 여차하면 들이탈 수 있는 보협 같은 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는 심환지가 비밀편지를 없애지 않고 간직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어찰에 즐겨 사용한 의상이 결정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문자 끝에 ㅋㅋ나 ㅎㅎ을 쓰는 것은 대부분 심각해질 수 있는 내용을 농담처럼 얼버무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만약에 심환지가 비밀편지를 협박용으로 세상에 내놓았다면 정조는 '하하 농이였네'라고 웃어 넘겨 버리지 않았을까.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다형 김현승 시인 탄생 100돌

그의 시는 온전히 그의 삶이었다



아내와 포즈를 취한 다형 김현승.

28일 양림동서 표지석 제막식

기념식·학술토론 등 문학대전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제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러라 하늘 제/ 나의 가장 나아준 지닌 것도 오직 이뿐...” <‘눈물’ 중에서>

가을이면 우리들 곁으로 살며시 다가오는 시인이 있다. 고독의 시인, 커피의 시인, 눈물의 시인, 다형(茶兄) 김현승(1913~1975).

한 점 부끄럼 없는 지조의 삶을 추구했던 다형은 한국현대시단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지성 시인이다. 그는 친일문학을 하지도 않았고, 시류에 영합하는 글을 쓰지도 않았다. 오로지 선비정신과 지사적 안목으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갔다. 참 시인이었다.

다형 김현승 시인의 탄생 100돌을 맞아 표지석 제막식,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장 손광은)는 28일 오전 11시 남구 양림동에서 선생의 대표작 ‘절대 고독’과 시인의 얼굴이 새겨진 표지석 제막식을 갖는다. 오후 2시에는 남구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다형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대전’을 연다. 문학대전은 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김현승 삶과 일대기 상영, 3부 대표시 낭송, 4부 학술토론회 순서로 이어진다.

학술토론회는 다형의 시와 생애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진다. 첫 발표자로 광주시 서울대 명예교수가 나서 ‘김현승의 고독’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인섭 숭실대 교수가 ‘김현승의 삶과 문학’을, 이은규 문학박사가 ‘김현승 시의 현재성’에 대해 발표한다.

김현승 시인의 문학세계와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광주고 재학생

김현승 시인으로부터 시를 배웠던 소설가 문순태씨가 ‘내가 본 스승 김현승 시인’을 주제로 그 시절을 회고한다. 특히 문 작가는 이성부(1942~1912) 시인, 박봉우(1934~1990) 시인과 함께 스승으로부터 시를 배우던 당시의 에피소드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다형의 5남 김청배씨 부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청배씨는 이 자리에서 광주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의 아버지, 시인 김현승’에 대한 짝막한 얘기도 들려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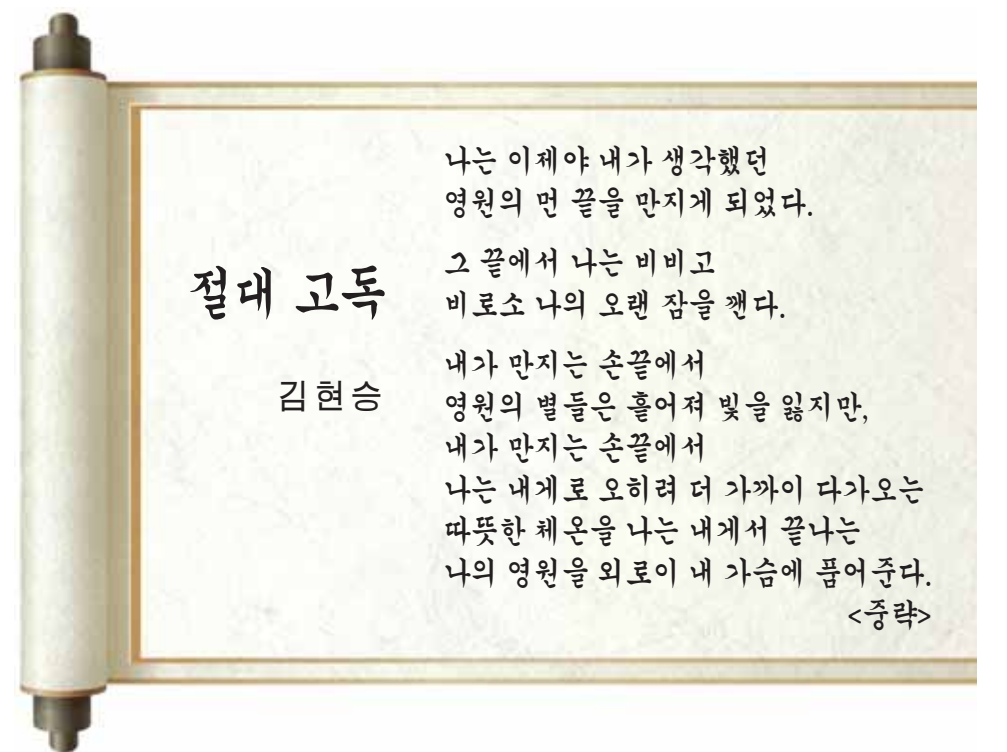
다형은 1913년 4월 4일 평양에서 6남매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창국 목사가 광주

양림교회로 부임하면서 1919년 4월에 양림동에 정착했다. 양림동은 소년 김현승이 무등산을 바라보고 시심을 키운 문학적 공간이다.

김현승은 숭실전문학교에 다니던 3학년 때인 1934년 5월 동아일보에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으로 등단했으며 이후 서정성 짙은 시와 종교적 성찰이 담긴 시를 발표했다.

그는 ‘커피의 시인’으로 불릴 만큼, 유독 커피를 사랑했다. 절대 고독 속에서 그가 써낸 많은 시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무엇보다 그는 삶과 시가 다르지 않는 ‘시행일치’의 삶을 추구한 시인이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절대 고독

김현승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했던 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원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나는 내게서 끝나는 나의 영원을 외로이 내 가슴에 품어준다. <중략>

하늘·바람·물... 자연 그대로 '무등도원경'

강운 개인전, 30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무등을 보며'

지난 20여년간 하늘, 바람, 물 등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그려온 강운씨가 오는 30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무등도원경(無等圖源景)-언어 풍경'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강씨는 이번 전시에서 아크릴판 위에 화선지를 올리고 동양화를 그리듯 한 획을 내려가는 최소한의 작업으로 회화의 궁극적 지향점을 찾는 '물 위를 걷다' 시리즈를 선보인다. 자연과 소통을 통해 작가의 흔적과 자연 그대로가 합일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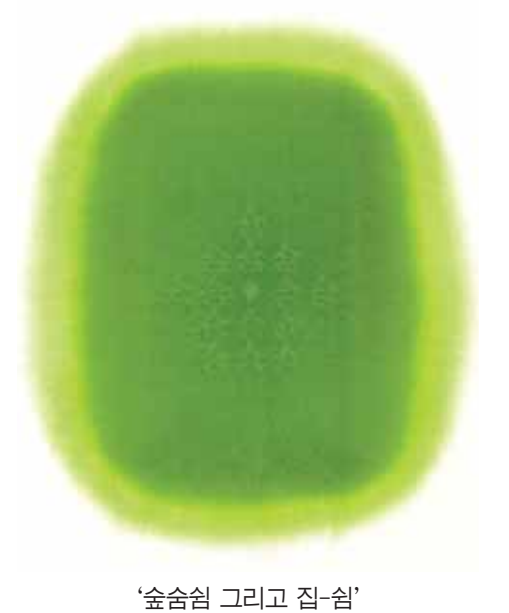
이 시리즈는 아크릴판에 흡수되지 않은 기포

반응이 서로 스며들고 번져나가면서 고스란히 화선지에 형상화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들을 통해 인간사의 혼돈과 갈등, 화합과 조화의 질서를 은유적으로 보여 주면서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인간 존재에 대한 반성을 던진다.

“무한의 세계 속에 담긴 언어의 풍경에서 가장 평범한 집의 소재를 통해 예술이 주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강씨의 말이다. 문의 062-383-010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술숨쉬 그리고 집-침'

광주 CBS

목회자 설교 스피치 세미나

주강사



김상복 목사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박명규 국장 (서울 CBS)



장주희 부장 (서울 CBS)

- 일시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성림침례교회(각화동)
- 강사 김상복 원로목사(할렐루야교회) 박명규 국장, 장주희 부장
- 대상 교역자(목회자부부 및 부교역자, 전도사) 선착순 사전등록 우선
- 사전등록 9월 23일부터~
- 문의 및 등록 062)376-8501, 8700
- 제공내용 참가비 무료 및 점심식사 제공

시간계획

- 10:00 여는 예배
김상복 목사(설교자의 조율된 악기(담전 4:12-16))
- 중식
- 박명규 국장(매력적인 목소리 찾기)
- 장주희 부장(연단스피치)
- 17:00

주최 **광주 CBS**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